

## 제80장 아 바 싸

메카에서 계시된 42절로 이슬람의 기본원리와 메세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예증, 인간과 식물 등 모든 일용할 양식을 창조한 홀로 존재하신 유일신 및 부활과 그 양상을 주로 다루고 있다.

본 장은 장님 「압둘라 이븐 움무 마크툼」이 메카 꾸라이쉬 부족들을 이슬람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설교중에 있는 선지자 무함마드를 찾아와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가르쳐 준 것을 그에게 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본 장이 시작되고 있다.

주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오만과 불신, 그리고 이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 능력에 대한 예증, 인간의 삶이 편안하도록 일용할 양식을 얻는 길을 쉽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이야기 한 후

부활과 부활의 양상, 이때 모든 인간은 부활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형제도 아내도 친척도 부모도 아랑곳 없다는 듯 도망가는 인간들을 묘사하면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1절의 “선지자께서 얼굴을 찌푸리시고(아바싸) 등을 돌리셨나니”에서 언급된 어휘 “아바싸”에서 유래된 것으로 본다.

### 제 80 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선지자께서 눈살을 찌푸렸고  
등을 돌리셨나니<sup>1)</sup>

2. 장님이 그분께 다가와 방해하  
였기 때문이라<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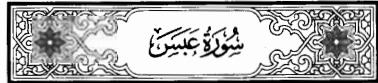
3. 그가<sup>1)</sup> 스스로를 순결케 하려  
하는지를 무엇이 그대로 하여금  
알게 하리요

4. 그가 교훈을 받고 그대의 교  
훈이 그를 유익하게 할런지도 모  
르니라

5. 스스로 충만하다 생각하는 자  
있나니<sup>1)</sup>

6. 그대여 그를 경계하라<sup>1)</sup>

7. 그가 스스로를 순결케 하지 아  
니한 것은 그대의 책임이 아니라<sup>1)</sup>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عَبَسَ وَتَوَلَّى ۝١

أَنْ جَاءَهُ الْأَعْمَى ۝٢

وَمَا يَدْرِيكَ لَعَلَّهُ يَكْفُرَى ۝٣

أَوْ يَدَّبَّرَ مَنَّعَهُ الذِّكْرَى ۝٤

أَتَمَنَّ أَنْ سَتَعْفَى ۝٥

فَأَنْتَ لَهُ تَصَدَّى ۝٦

وَمَا عَلَيْكَ أَلَّا يَحْكُمَى ۝٧

1-1) 한 장님이 선지자에게 다가와 하나님의 영역인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을 때 얼굴을 찌푸리며 그로부터 등을 돌렸다. 그 당시 선지자 무함마드는 메카 꾸레이쉬 지도자들을 이슬람으로 인도하느라 분주하였다. 그대 장님 「압둘라 이븐 움무 마크툼」이 선지자에게 와 말하길, “하나님의 선지자여! 하나님 이 당신에게 가르쳐 준 것을 저에게 가르쳐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선지자께서 분주하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 질문을 반복하였다. 그래서 선지자 무함마드는 계속되는 그의 말을 자꾸 단절시키는 그에게 얼굴을 찌푸리며 등을 돌렸을 때 이 계시가 내려진 것으로 전하여지고 있다(하-쉬야 알싸-위 232/4 및 타프씨르 알꾸르투비 210/19).

2-1) 1절 해설 참조.

3-1) 장님

5-1) 그가 가진 재물만으로 충분하여 하나님과 믿음이 필요치 않다는 자들에게

6-1) 경계하고 대적하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라.

7-1) 불신자들이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여 순결케 하지 아니한 것은 그대의 책임이 아니며 또한 그대가 그들을 복음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의무도 아니며 단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그대의 책임이라.

8. 그러나 진실로 열망하여 그대에게 다가오는 자와<sup>1)</sup>

وَأَمَّا مَنْ جَاءَكَ يَسْعَى ۝٨

9. 마음속에 두려움을 느끼는 자에게

وَهُوَ يَخْشَى ۝٩

10. 그대가 그를 소홀이 하였으며

فَأَنْتَ عَنْهُ تَكْفَى ۝١٠

11. 결코 그래서서는 안되나니 그것이 하나님의 교훈이기 때문이라

كَلَّا إِنَّمَا تَدْعُرُهُ ۝١١

12. 그러므로 원하는 자에게 그로 하여금 교훈을 간직하도록 하라<sup>1)</sup>

فَمَنْ شَاءَ ذَكَّرْهُ ۝١٢

13. 그것은 명예롭게 기록되어 있으며<sup>1)</sup>

فِي صُحُفٍ مُّكَرَّمَةٍ ۝١٣

14. 순결하고 성스럽게 그리고 명예스럽게

مُتْرَفُوعَةٍ مُّطَهَّرَةٍ ۝١٤

15. 서기들의 손들에 의해 기록되나니<sup>1)</sup>

بِأَيْدِي سَفَرَةٍ ۝١٥

16. 영광스럽고 고귀한 것이라

كِرَامٍ بَرَرَةٍ ۝١٦

17. 하나님을 불신한 인간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

قُتِلَ الْإِنْسَانُ مَا أَكْفَرَهُ ۝١٧

18. 그 무엇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느뇨<sup>1)</sup>

مِنْ آيَاتِي خَلَقَهُ ۝١٨

8-1)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고 선을 추구하기 위해 그대에게 다가오는 자들에게는

12-1) 하나님의 종들 중에 원하는 자 있다면 꾸란으로부터 교훈을 얻어 그것으로 지침서가 되도록 하게 하라

13-1) 하나님께 있는 영광스러운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으며

15-1) 하나님과 선지자들 사이를 오가며 일을 맡은 천사들에 의하여

18-1) 하나님이 불신자들을 무엇으로 창조했기에 그들이 오만하고 거만해 하는가

19. 한방울의 정액으로 인간을 창조하여 운명을 주었을 뿐이라<sup>1)</sup>

مِنْ نُّطْفَةٍ خَلَقَهُ فَقَدَرَهُ ۙ ﴿١٩﴾

20. 그런 후 인간이 출생하기에 순탄한 길을 두었으며<sup>1)</sup>

ثُمَّ السَّبِيلَ يَسَّرَهُ ۙ ﴿٢٠﴾

21. 그런 다음에는 인간을 죽게 하여 무덤으로 향하도록 한 후

ثُمَّ أَمَاتَهُ فَأَقْبَرَهُ ۙ ﴿٢١﴾

22. 하나님은 뜻이 있을 때<sup>1)</sup> 인간을 다시 부활하시니라

ثُمَّ إِذَا شَاءَ أَنشَرَهُ ۙ ﴿٢٢﴾

23. 실로 인간은 하나님에 명령한 것들을 수행치 않노라

كَلَّا لَمَّا يُفِضُ مَا أَمَرَهُ ۙ ﴿٢٣﴾

24. 인간으로 하여금 그가 먹는 음식을 숙고하여 보게 하라

فَلْيَنْظُرِ الْإِنْسَانُ إِلَى طَعَامِهِ ۙ ﴿٢٤﴾

25. 실로 하나님은 흠족한 비를 내리게 한 후

أَكَا صَبْنَا الْمَاءَ صَبًّا ۙ ﴿٢٥﴾

26. 대지를 펼쳐 그곳으로 부터 식물들을 재배케 하여

ثُمَّ مَشَقْنَا الْأَرْضَ شَقًّا ۙ ﴿٢٦﴾

27. 그곳에서 곡식들을 성장케 하며

فَأَنْبَتْنَا فِيهَا حَبًّا ۙ ﴿٢٧﴾

28. 포도와 푸른 식물과

وَعِنَبًا وَقَضْبًا ۙ ﴿٢٨﴾

29. 올리브와 종려나무와

وَزَيْتُونًا وَنَخْلًا ۙ ﴿٢٩﴾

30. 울창한 정원과

وَحَدَائِقَ غُلْبًا ۙ ﴿٣٠﴾

19-1) 하얗은 한방울의 정액으로 인간을 창조한 후 그가 먹을 양식을 베풀어 그가 살아갈 기간과 그가 해야 할 일들을 부여했다고 이브누 까씨르는 풀이하고 있다(무크타씨르 타프씨르 이브누 까씨르 600/3).

20-1) 태내에서 일정기간 인간으로 형성된 후 태내에서 세상으로 출산하는데 그 과정을 순탄하게 하였다. 「하산 바쓰리」는, “두 줄기로부터 나온 인간이 어떻게 오만해하고 거만할 수 있는가?”라고 말하고 있다(타프씨르 알꾸르부미 216/19).

22-1)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죽은 자를 다시 부활하여 계산하고 보상한다(타프씨르 알카진 210/4).

31. 과실과 목초가<sup>1)</sup> 있으니

وَقَالِهَةٌ وَأَبَا ۙ

32. 이 모든 것은 인간과 가축들  
을 위한 것이라

مَتَاعًا لَّكُمْ وَلِأَنْعَامِكُمْ ۙ

33. 고막이 터질듯한 소리가 들  
릴 때면<sup>1)</sup>

فَإِذَا جَاءَتِ الصَّاعَةُ ۙ

34. 그날 인간은 그의 형제들로  
부터 도주하나니

يَوْمَ يَقِفُ الْمَرْءُ مِنْ أَخِيهِ ۙ

35.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وَأُمِّهِ وَأَبِيهِ ۙ

36. 그의 아내와 이이들로부터  
도주하노라

وَصَاحِبَتِهِ وَبَنِيهِ ۙ

37. 그날 그들 각자는 타인에게  
무관심하며 스스로의 일에만 열중  
하노라

لِكُلِّ امْرُؤٍ مِنْهُمْ يَوْمَئِذٍ شَأْنٌ يُغْنِيهِ ۙ

38. 그날 그들 중의 일부는 얼굴  
에 빛이 나며

وَوَجُوهٌ يَوْمَئِذٍ مُّسْفِرَةٌ ۙ

39. 웃음짓고 기뻐 할 것이나

ضَاحِكَةٌ مُّسْتَبْشِرَةٌ ۙ

40. 일부는 그날 그들의 얼굴이  
먼지로 싸여지며

وَوَجُوهٌ يَوْمَئِذٍ عَلَيْهَا غَبَرَةٌ ۙ

41. 어둠이 그를 감싸니라

تَرَهَقَهَا فَتْرَةٌ ۙ

42. 그러함이 오만한 불신자들에  
게 있을 것이라

أُولَئِكَ هُمُ الْكَافِرَةُ الْعَجْرَةُ ۙ

31-1) 압브 : 짐승들이 먹는 풀이라고 꾸르두비는 해석하고 있다(타프씨르 알꾸르두비 220/19).

33-1) 부활을 알리는 소리